[UCI]I804:24011-200000240106

2010년 8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困齋 鄭介淸의 學問과 政論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주 유 나

困齋 鄭介淸의 學問과 政論

Gonjae Jung Gaechung's Scholarship and Political Ideas

2010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주 유 나

困齋 鄭介淸의 學問과 政論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주 유 나

주유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10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록

곤재 정개청은 모든 행실에 깔끔하고 근엄했고 인품과 학문을 모두 흠모하였으며 천성이 독실하고 입지가 명확하였다. 그는 모든 것을 困하게 얻었다고 하여 호를 困齋했으며 후일 제자들에게, 道를 쌓는 것으로 富를 삼지 財物로써 부를 삼지말 것이며 德이 성하는 것을 貴로 삼지 벼슬로써 귀를 삼지말 것이며 仁을 얻음이 榮華이지 높은 벼슬이 영화가 아니며 구차히 利를 얻으려는 것이 辱이지 困厄을 욕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다.

또한, 자질과 성품에 따라 가르치되 반드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게 된 후에야 가르침을 그쳤다는 선생의 교육적 지도 열성이 있었다.

그는 입신양명하여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여 과거 공부에 열중하여 초시에 여러 번 합격했었다. 그러나 사서를 공부하면서 사서에 담긴 정 미한 뜻을 두어 영주산의 산사로 들어가 학문에 정진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대학 소학의 절목과 중용 논어 맹자를 차례로 읽고, 심경 근사록을 정독한 다음, 태극도의 이기오행의 이치와 선천후천의 수, 그리고 천지일월의 운행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탐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는 특히 주역과 강절의 률려신서 황극경세서를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복서 산수 등의 법칙과 황왕제패의 도덕공력의 학술에도 두루 밝게 되었다. 그는 벽촌에 기거하여 견문이 고루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서울에 들러 널리 서적을 구하고 이를 탐독하였다. 또한 화담의 문하에서 당시의 일반적 학설과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문을 접함으로써 그간 품어왔던 모든 의문을 풀게 되었고 사리에 두루 밝게 되어 그가 하는 어떤 일도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만년에는 무안의 엄담에 살면서 륜암에 정자를 짓고 도학을 강론함에 원근의 지학지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한다. 생이 진정한 절의와 청담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동한절의와 진송청담설을 절의를 배격한 배절의이라 하여 1590년 6월 함경도 경원의 아산보에 유배되었는데, 유배되기 전 鞫問을 받을 때의 상처가 악화되어 동년 7월 26일 62세를 일기로 유배지에서 그의 일생을 마쳤다.

정개청은 사후에도 당인이 아닌 당인이 되어 동서당쟁에 밀려들어 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액서원인 자산서원이 다섯 번이나 세워지고 또한 다섯 번이나 뜯기는 비운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그의 저작들이 소실되어 그가 쌓아 올린 심오한 학문적 업적도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그의 저서로는 우득록 3권, 수수기 9권 변예편성 2권이 있다고 하나, 수수기와 변예편성 2권은 기축옥사에 모두 분실되었으나 다행히 우득록이 숙종 15년(1689)년 4월에 왕명에 의해 각판을 시작한지 3년 만인 1692년에 간행되었고, 1703년에 부록 1권이 속간되어 각판 일부와 각판 인쇄본 몇 질이 전해 옴으로써 그의 학문적 자취를 찾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해박한 학문을 한데 모은 책인 우득록을 통해 그의 학풍과 겸허를 신조로 하는 인품을 엿 보며, 모진 당쟁의 여파 속에서 당인이 아닌데도 당인

이 되어 높이고 깍이기를 반복했던 곤재 정개청 선생의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알아보며, 숙종 대왕의 사제문에서 보았듯이 오로지 학문만을 위해 벼슬과 봉록을 버린 한국의 대학자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SCT

Gonjae Jung Gaechung's Scholarship and Political Ideas

Ju, YuNa
Advisor : Prof. Lee Jong Bum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onjae Jung Gaechung was solemn, faithful and determined with good manners so that he was highly respected in terms of his character and his study. He named himself 'Gonjae', which means that he gained everything in difficulties and taught his disciples to regard, first, accumulating the way of living called 'Do' as their wealth, not making the money itself, second, completing virtue called 'Duk' as their precious treasure, not taking government posts, third, having 'Gentleness' as their glory, not being in the high official rank and finally pursuing selfishness as their shame, not having a misfortune itself.

He also gave them his teaching in accordance with his qualities and character, owning the passion and educational mind as a teacher for he asked them to listen to their hearts and come to realization by themselves and,after that, he gave them his instructions.

He studied hard and often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s to please his parents by being a government officials, aiming at rising in the world and gaining fame. However, as he studied writings by historians, he preceeded a further study to desire the true meanings in them, entering a temple in Mt. Youngju. There he read Julmok of Daehak and Sohak, and Joongyong, Noneo and Mangja one by one. Then he read Simgyung Geunsarok and studied a variety of principles such as Yigiohang in Taegeukdo, the numbers of the innateness and posterior and the movement of Chunjiyilwol and so on. He particularly looked into Juyok and Ryuleosinseo of Soong(Gangjul),

Whangkeukyungseseo that he extensively became knowledgeable on the laws of astronomy, geography, the art of divination and arithmetic etc. and arts and sciences of Dodukgongryuk by Whangwangjepae. While staying in the remote village, he worried if he might be a man of narrow view and understanding and often visited Seoul to buy books and was absorbed in reading. In addition, at a school of Seo Gyungduk, he got to know various kinds of theories unlike any other theory which was common those days and solved the questions that he had in mind and gained insights on everything to do right. In his old time, he lived in the temple called 'Umdam' in Moo-an and built a pavilion on Ryoon-am and taught 'Do' so that a lot of pupils around there and from a far gathered together like clouds. In June, 1590, however, he was sent into exile to Asanbo in Gyungwon, Hamgyundo by the reason of that, to enlighten Jul and Chungdam, he wrote Donghanjul and Jinsonchungdamsul, which were considered as the writings rejecting fidelity to the major principle. Before that, his injuries by torture got worse and he died at the age of 62 on July, 26, in the year called 'Dong'.

Though Jung Gaechung were considered as a party member, in fact, who was not a member, got involved in faction between two political parties so that Jasanseowon, a private school set up in remembrance of his study, had hardships by being built and destroyed five times over and over. In addition to it, since his books disappeared, his profound academic accomplishment still has not been acknowledged yet. As for his writings, there are 3 copies of Woodeukrok, 9 copies of Soosoogi, and 2 copies of Byunyepyunsung, but Soosoogi and 2 copies of Byunyepyunsung were all lost in Gichookoksa. Fortunately, however, after 3 years of a wood engraving, in 1692, Woodeukrok was published by order of King Sookjong in April, 1689, his 15th year.

In this thesis, there are three objectives as follows; First, through his book, 'Wooreukrok', which is the book that his rich knowledge is sumed up, his academic traditions and character based on humility will be examined. Second, there will be an investigation of the times when Gonjae Jung Gaechung went through promotions and demotions in severe faction as if he had been a party

member. Last, it will be emphasised that, as shown in the book of Sajemoon by King Sookjong, he was the greatest scholar of Chosun Dynasty, the old times of Korea, forsaking positions and wealth only to get academic accomplishment.

目　次

ABSTRSCT

Ⅰ. 머리말 1

Ⅱ. 정개청의 공부와 학풍 4

1) 생애와 공부 4

2) 사색과 自得을 중시한 학풍 11

Ⅲ. 정개청의 정치 사상 18

1) 현실비판 18

2) 처세론과 국왕비판 21

3) 君師論 : 붕당극복의 논리 28

Ⅳ. 맺음말 33

Ⅴ. 참고문헌 34

1. 머리말

16세기 조선사회는 정치사적으로는 훈척의 거듭된 사림 탄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사림이 정치 및 사회문화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시기였다. 세조의 정난과 즉위를 계기로 배타적 독점체제를 구축한 勳戚세력은 국가의 要職을 독점하는 한편, 農庄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私的 경제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파탄과 함께 농가경제의 파멸을 초래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성종 치세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사림파는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새로운 性理學 즉 실천도학을 추구하면서 훈척정치를 비판하였다. 사화는 이러한 사림에 대한 훈척의 정치탄압으로 근 반세기 이상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1)]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림파는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로의 개조를 통한 주도권 확보, 나아가 서원을 중심으로 한 公論圈의 확보 및 확대, 그리고 거듭된 재조 및 재야 여론을 통한 비판언론의 활성화를 통하여 마침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림파는 훈척이라는 극복대상 앞에서는 거의 행동을 같이하였지만 그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에서 차이가 있었고, 나아가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 시각차가 온존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붕당의 발생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붕당 간에는 나름의 성리학적 宇宙觀과 人性論 및 시대인식 및 모순타개의 방향을 둘러싼 出處論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붕당이 학파 및 학단을 매개로 한 학문적 분화의 산물인 때문이었다.[2)]

---

1) 설석규, 「조선 중기 사림파의 정치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4』, 한국국학진흥원, 2007.

2) 이들 학파를 지역적 기반과 연관시켜 볼 경우 기존 연구들은 서경덕학파는 경기도에 이이·성혼학파는 경기·충청도에 근거를 두면서 호남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황학파는 경상좌도에 조식학파는 경상우도에 기반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이황·조식학파는 성종대 영남사림파에 서경덕·이이·성혼학파는 중종대 기호사림파에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서경덕을 중심으로 한 서경덕학파가 제일 먼저 형성되고 뒤를 이어 이황학파와 조식학파, 마지막으로

따라서 선조 치세 이래 정치형태는 성리학적 이념에 투철한 사림이 주도하는 士林政治이면서도 정치세력의 역학관계를 골격으로 하는 朋黨政治였던 것이며 이때 정치갈등은 권력명분을 위한 공론의 대결을 수반하는 公論政治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호남은 붕당 갈등의 온상과 같았고 그 한 중간에 평생 처사의 삶을 살았던 困齋 鄭介淸이 있었다.

지금까지 정개청에 대한 연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시점에 선학의 연구는 정개청의 생애와 학문을 소개하며 己丑獄事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강조했으며[3], 화담학파에 있어서 대표적 호남학인으로 파악하는 한편, 주자학의 군주론과는 여러 모로 대비되는 君師論을 통하여 尊王論의 선구적 정치철학자로 이해하고 있다.[4]

그리고 정개청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을 비롯하여 역사인식 속에서 정개청이 관료의 탐욕 나아가 임금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기축옥으로 처사형 사림이 대거 희생되었기 때문에 향후 조정과 재야, 중앙과 비장의 소통과 견제가 결정적으로 차단됨을 강조하였다.[5] 또한 鄭介淸의 학문 범위를 큰 틀에서 유학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도 조선조 학문이 주류인 정주학의 범주 속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6]

본고에서는 정개청의 군주 정치론과 주자성리학적인 연구중심이었던 선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鄭介淸이 진정 원하는 改革인 士族革新 운동 즉 사족 내

16세기 후반 이이와 성혼학파가 형성되는 등 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하였다. 호남지방은 기호사림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그나마 경기·충청지방의 주변부로서 이해되고 그 독자적 기반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16세기 호남사림들은 나름대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다양한 학파를 이루며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선조 초에는 중앙 정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고영진, 「16세기 호남사림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3,

3) 이현석, 「困齋 鄭介淸 선생의 생애와 학문」, 『국역 愚得錄』 1988.

4) 고영진, 「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3, 1993 ; 정호훈, 「16세기 말 북인의 형성과 국가·군권의식」,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5)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6) 안동교, 「정개청 사상에서 '절의'의 철학적 함의」, 『기축옥사 재조명』,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학술심포지엄, 2009.

부에서 정개청과 김천일과의 갈등, 그리고 정철과의 갈등을 통해 사족 사회 정화 운동을 밝혀보고, 이러한 정화운동을 통해 도덕적 학술정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정치를 강조해 볼려고 한다. 학자가 대우받고 선비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士道'가 바로 서야 한다는 道德的 學人政治에 초점을 맞춰 정개청의 학문과 정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정개청의 공부와 학풍

1) 생애와 공부

정개청은 중종24년(己丑, 1529년) 아버지 世雄과 어머니 錦城 羅氏 사이에 나주의 錦城 대곡동에서 태어났다. 字는 義伯이고 호는 困齋며 시호는 文淸公이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였던 정개청은 젊은 시절에 책을 구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여러 곳을 유랑하였는데 화담학파의 본거지인 개성까지 갔다. 만약 서경덕 생전에 찾았다면 10대 후반이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7살 연상인 박순을 만났을 수도 있었다. 또한 허엽·박민헌 아래에서 같이 글을 읽었을지도 모른다.[7)]

정개청은 청년시절 안정되지 못한 생활조건 속에서도 독서에 몰두했다. 四書를 읽으면서 유가의 義理가 바로 이곳에 있음을 깨닫고,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과거를 포기했다. 그는 산사로 들어가 土窒을 만들고 홀로 단정히 앉아『대학』·『소학』의 절목과 『중용』·『논어』·『맹자』의 여러 책을 차례로 연구하고 『心經』·『近思錄』을 차례로 따라 읽고, 〈太極圖〉의 二氣五行의 오묘한 뜻과 선천·후천의 數를 정밀히 공부하여 깊은 뜻을 강구하지 않음이 없었고, 『서전』의 朞三百과 璿璣玉衡의 註·周天의 도수度數·星紀의 躔次·일월의 운행을 정밀히 공부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손으로 계산하면서 마음으로 계획하여 입으로 분별하여도 서로 부합되었다.

〈洪範〉의 剛一函三의 註說에 분명치 못한 곳이 있으므로 분발하여 밥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홀로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 알아서 습지에 앉아도 움직이지 아니하니 지렁이의 똥이 옷에 가득하였다. 이런 지 8, 9일만에 비

7)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301쪽.

로소 환히 통하니 그 勤苦하게 공부한 것이 이와 같았다. 『주역』·『邵子律呂新書』·『皇極經世書』에 더욱 독실하여 천문·지리·의약·卜筮·算數·戰陳의 법과 皇王帝覇의 道德功力의 術에 대해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었다.[8] 그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목표물에 반쯤 올라가다가 도중에 떨어져서 결국 '반쯤 살고 반쯤 죽은 벌레'라고 비유하기도 했다.[9]

정개청은 배우는 자의 뜻을 세울 때는 "홍수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굳은 암벽이라 할지라도 붕괴되지 않을 수 없어 우뚝히 서서 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만길이나 되는 기둥이 얼마나 굳세고 강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듯이 배우는 자의 뜻을 굽혀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하고 항상 굳세야 한다는 걸 강조하였다.[10]

정개청이 박순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이어갔을 때인 선조 1년, 行·心 및 意·志에서 무엇을 우선에 두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다. 다음은 정개청이 박순에게 올린 글의 일부이다.

> 事物을 아는 것은 마음의 靈인 것이니 이른바 人心의 영이 앎이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며 사물에 향하는 것은 마음의 行으로 이른바 뜻이 정해져 향함이 있는 것이 이것이다. 사물을 經營하는 것은 마음의 謀度다. 이른바 일에 處함에 정밀하고 상세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며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총괄적으로 이를 논하면 곧 性은 마음의 本이고 體의 밝음인 것이다. 무릇 사물을 만남에 마음의 理會를 만듬이 精인 것이며 마음이 한 가지로

8) 『愚得錄』, 附錄下, 「困齋先生行狀」 "大小學節目庸語孟諸書次第研窮 心經近思錄循序讀誦 至於太極圖二氣五行之妙 先後天之數 無微不討 無奧不賾 而書傳朞三百 璿璣玉衡註 周天度數 星紀躔次 日月運行 無不精究 籌之於手 畫之於心 辨之於口 若合符契 適於洪範綱一函三之說 有所未瑩 發憤忘食 沈思默會 塊坐濕地而不動 至有蚯蚓之矢滿衣 若是者八九日 然後乃始渙釋 其勤苦攻業類如是 若至易學及邵子律呂新書 皇極經世書 用功益篤 而天文地理醫藥卜筮 算數戰陳之法 皇王帝霸 道德功力之術."『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이하 생략) 40책 438쪽.

9) 『愚得錄』권1, 「自學告諸朴思庵淳書」 "甘爲半上落下之人 而自處於半生半死之虫矣." 40책 338쪽.

10) 『愚得錄』 권1, 「論立志」 "譬如決萬丈之障堤而放奔猛之橫流 高山壁巖 靡不崩圮 而屹然不汨 萬仞之柱 其强毅爲如何哉 學者之立志 其强如是 則必無撓奪之患 而將見其學聖之功矣 然當强而强 君子之强也 而不當强而强强者之强也 不可不盡於明善之功也."40책 335쪽.

곧고 바르게 가는데의 뜻인 것이고 경영하며 모도하는 의지인 것이며 마음의 기력이 능히 만드는 재능인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마음의 管理하고 포섭하는 主宰者인 것이다.[11]

아마 박순이 정개청에게 "뜻을 펴야 하지 않겠는가?" 하자, "아직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공부를 할 때"임을 들어 사양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던 것 같다.

정개청이 "행동과 마음에서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意과 마음에 두어야 할 바(志)중에서 무엇이 앞서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앎(知)은 志意와 더불어 한 때의 일이고 志와 意는 서로 사이가 있는 것 같으나 만약 意를 먼저하고 志를 뒤로하면 이는 마음이 善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먼저 하고 是非를 알아 시비의 곳에 향하는 것을 뒤로 삼는 것이니 그렇다면 대학의 여덟 조목(八條)의 순서는 어찌하여 是非를 아는 것을 먼저하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好惡)에 가는 것을 뒤로 하였으며 지지와 능득의차서(知止能得之次)에 어찌 定함이 있음을 먼저하고 능히 생각함을 뒤로한 것 입니까?

대저 내 마음의 앎이 사물의 처음과 끝을 貫通하여 그 사물에 가는 것을 志라 말하고 사물을 經營하는 것을 意라 말하는 것이니 그 이름한 바는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모두 내 마음의 앎(知)인 것입니다.[12]

박순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하니 行意가 먼저이며 心志는 다

11) 『愚得錄』권3, 「困齋先生事實」(丁卯) "論志意先後 略曰 知事物者 心之靈也 所謂人心之靈莫不有知是也 向事物者 心之之也 所謂志有定向是也 營事物者 心之謀度也 所謂處事精詳是也 據朱子之說而總論之 則性者 心之本體之明也 凡遇事物 心之會做底情也 心之一直去底志也 心之經營謀度底意也 心之氣力能做底才也 此所謂心是管攝主宰者也." 40책 423쪽.

12) 『愚得錄』권2, 「論志意先後」 "知與之一時事 志與意似有間焉 若以意爲先而志爲後 則是以心之好善惡惡爲先 而知是非而向那是非之地爲後 然則八條之序 何以知是非爲先 而實好惡爲後也 知止能得之次 亦何以有定爲先 而能慮爲後也 大抵吾心之知 通貫乎事物之始終 而之於事物 謂之志 營於事物 謂之意 其命名雖殊 實皆吾心之知也."40책 363쪽

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意先志後' 혹은 '先行後心'의 입장이었다.

> "物이 이르러 오면 앎이 되고 앎이 있은 후에 좋아하고 미워함이 형성 되는 것이다."라 했고, 주자는 말하기를, "알면 마음의 神明이 衆理를 妙用하고 만물을 主宰하는 것이다. 이에 志와 意의 순서를 논함에 있어 그 心知를 원인 삼지 않으면 이는 나무를 논함에 있어 오히려 가지와 잎만을 논하고 그 뿌리를 탐구하지 않으며 물을 논함에 있어 流派만 논하고 그 原泉은 근본 삼지않은 것과 같아 실지로 불안한 바가 있게 되는 것이니 이로써 意가 먼저고 志가 후가 된다는 설이 있게된 것입니다."[13]

이에 대하여 정개청은 '先志後意' 혹은 '先心後行' 즉, 마음이 바름을 얻은 다음에야 바른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가령 효도가 되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알고 뜻(志)이 정(定)하여 그를 향함이 있은 후에 가히 事親의 일을 經營하고 謀度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기에 後生은 말하기를 "사물을 아는 것은 마음의 靈이니 이른바 사람 마음의 靈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요 사물에 향하는 것은 마음이 간 것이니, 이른바 뜻(志)이 정해짐에 따라 向함이 있는 것이며 사물을 경영하는 것은 마음의 謀度이니 이른바 일에 처함에 있어 정밀하고 상세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며 자기 분에 넘치지 않도록 절제 할줄 안다."
>
> 志는 知와 같고 意는 行과 같다고 하니 이 說 또한 어떠합니까? 가령 惻隱한 일이 돌연히 눈앞에 觸覺된다면 측은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까? 도모하고 처리한 후에 생기는 것입니까? 後生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내마음에 본래 있는 知覺이니 이른바 良知인 것이며 느껴 통한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깨달아 마음이 저 것에 가서 도모하고 처리하여 그 가볍고 무거움의 마땅함을 求得한 것으로 봅니다.
>
> 朱子는 말하기를, "事物에 이르면(至) 앎이 되고 이를 아는 것은 마음(心)이

13) 『愚得錄』권2, 「論志意先後」 "物至而知 知而後好惡形焉 朱子曰 知則心之神明所以妙衆理而宰萬物者也 則論志意之序而不原其心知 是猶論枝業而不探其根 論流派而不本其源 實有所未安者 是以 有意先志後之說."40책 363쪽

느끼는 것(感)이며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情이라 했고 또 性은 다만 理며 精은 이 것(理)이 흘러나와 運用한 곳에서 마음이 깨달은 것이니 理가 精을 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들 논설 또한 모두 情에 志意를 포함했다고 하겠는데 이 설(說을) 어떻다고 보십니까?14)

『大學』에서 멈춤을 알고 난 다음에 정해짐이 있고 정해져야 고요할 수 있으며 고요하여야 편안하게 되고 그런 후에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후에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하였음을 내세운 반론이었다. '의지논변'은 선조 즉위 이후에도 處士型 사림과 在朝型 사림 간의 수신관과 현실인식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아가 현실참여인가, 은둔처사의 길인가 하는 시대인식과 출처관의 문제가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박순이 현실을 인정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현실참여에 섰다면 정개청은 '새 임금이 즉위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뜻을 바르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셈이다.

'意志論辯'를 거치면서 박순은 정개청에게 『大學或問』을 소개하였다. 『四書集註』를 완성한 주자가 諸家의 학설과 해석이 서로 다른 연유를 제자들과 문답하면서 엮은 사서의 或問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쏟은 책으로 『大學』에 대한 주자의 최후의 이해를 살필 수 있는 문헌이었다. 그때까지 『大學或問』을 보지 못한 정개청은 크게 얻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 박순에게 '깨달음을 고하고자 편지'라는 글을 보내기를 다음과 같다.

선생을 뵙고 從遊 선생께서 大學을 熟讀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或問도 숙

14) 『愚得錄』권2, 「論志意先後」"假如爲孝者知事親 而志有定向 然後可以經營謀度事親之事 後生故曰 知事物者 心之靈也 所謂人心之靈 莫不有知是也 向事物者 心之之也 所謂志有定向是也 營事物者 心之謀度也 所謂處事精詳是也 知止能慮之次序...志似知 意似行 是說亦何如 且如惻隱之事 突然觸於目前 則惻隱之心 油然自生乎 經營謀度而後生乎 後生以爲油然自生者 吾心固有之知覺 所謂良知也 而感而遂通者 亦如此 纔知覺 心便之於彼而經營謀度 以求得其輕重之當矣 朱子曰 物至而知 知之者 心之感也 好之惡之者 情也 又曰 性只是理 情是流出運用處 心之知覺 卽所以具此理而 行此情者也 竊謂此等說 亦皆情含志意而言也 此說亦何如." 40책 363쪽.

독하라 가르쳐 주시기에 그 命을 듣고 이대로 엎드려 이것을 읽고 우럴어 생각 하였는데 날과 달이 이미 오래되니 공부가 많이되어 전날의 그름과 오늘의 얻은 바를 알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얻은 바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상세치 못했는데 하루는 논어를 읽다가 克己復禮가 仁이 된다는 곳에 이르러 곧 책을 덮고 생각하니 극기라는 것은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떼친 것을 말함이니 그 공부는 반드시 사물의 이치에 이르러 그 지식을 궁극적으로 추리함으로 하여 公私의 구분을 알고 誠意正心修身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바를 충실히 하는데 있는 것이며 그 지식 즉 格物致知가 오래되어 쌓여지는데 이르면 자연히 마음이 정직해지고 몸이 닦여져 그 본연의 성질을 얻게 되고 천리의 정당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이 바라는 바는 仁을 구하는 것입니다.[15]

"마음이 몸의 혈기에서 나오는 인욕을 벗어나 비로소 하늘에서 받은 본성을 다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仁을 체현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적었다. 박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던 것이다.

이후 정개청은 도성에 가면 박순을 찾아가 쉽게 구하기 어려운 책을 빌려보기도 했고 또한 제자들의 자질과 성품에 따라서 가르치되, 반드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한 후에 가르침을 그쳤을 정도로 선생의 교육적 열의는 대단하였다고 한다.[16]

정개청은 불혹의 나이에 무안의 엄담에 윤암정사를 짓고 정착하는데 학문에 뜻이 있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선생이 이에 講義契[17]를 결성하여

---

15) 『愚得錄』권1, 「自學告諸朴思庵淳書」 "及遊京師見先生 敎之以熟讀大學 又敎之以熟讀或問 聞命以來 俯而讀之 仰而思之 日月已久 工夫稍多 而後乃知前日之非 今日之得然亦未詳其所以如此者何所求 一日讀論語 到克己復禮爲仁處 卽掩卷而思之曰 克己者 克去已私之謂也 其工夫必在格物致知 以知公私之分 誠意正心修身以實所已知 久而至於積 則自然心正身修而得其本然之性 復其天理之正矣 其所以如此者 求仁而已."40책 338쪽.

16)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301~303쪽.

17) 『(국역)愚得錄』권2, 「序記」 "講은 토론하고 修治함을 말하는 것이며 義는 사물의 당연함을 이르는 이름이고 契는 이르기를 聲氣가 相應함을 求하여 스스로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일커르는 것이다. 천하의 사물은 각각 同類로서 모이지 않음이 없는 것인데 그 종류에 선악이 같지 않음이 있어서 사물에 다른 趣移가 되면 우리 벗들은 마땅히 의리를 講明하여 類가

규약을 세우고 때로 시험을 쳤다.[18] 경학을 비롯하여 역사, 천문, 지리, 의약, 산수, 전진법 등에 다방면으로 공부하였는데 특히 예론과 역학에 조예가 깊어 일가를 이루었고 나주, 함평, 영암, 보성, 화순, 광주 등지에서 많은 학자가 출입하였다. 정개청은 이곳에서 이들과 독실하게 공부하며 치열하게 토론하였다.[19] 제자들이 이룬 마을이 현 佛岩이며 지금도 제자거리라 부르고 있고 깊이 가르침을 받아 현달한 제자들[20]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으며 강론과 제자 육성에 힘썼다.

46세에 전라 감사 박민헌이 나주 진사 김응기 및 정개청을 임금께 천거하여 여쭈길 다음과 같다.

> 務安에 사는 幼學 鄭介淸운 사람됨이 치밀하고 분명하여 독실한 뜻으로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세가 지극히 淸貧하지만 일찍이 한 걸음도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조금도 누구에게 干請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버이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받들고, 門生들과 날마다 도의를 강론하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많고, 항시 禮經 공부에 공력을 들이고 易學에 있어서도 發明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김응기와 정개청은 심상한 인물이 아니고 특히 百執事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21]

이처럼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며 학풍에만 전념하던 정개청은 47세 유

되어 始終 서로 배반하여 떨어져 나감이 없게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契를 講義로 이름한 것이니 여러분에게 원하건데 마음을 두고 있을 행함에 있어 오로지 정의와 明道가 됨에 힘쓰고 謀利와 計功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겠다.

18) 『愚得錄』, 附錄下, 「困齋先生愚得錄附錄上」

19)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20) 이현석, 「곤재 정개청(困齋 鄭介淸) 선생의 생애와 학문」, 『愚得錄』, 1988, 羅德峻(나주사람, 현감), 羅德潤(나주감찰), 安重默(보성, 직강), 崔弘宇(화순, 별좌). 曺守弘(화순),吳益昌(무장), 羅德元(나주군 문평면, 현감), 宋濟民(광주, 호 海狂), 裵蕓(무안), 羅德顯(나주), 柳濬(나주 목사 몽정의 조카), 鄭混(무장, 현감), 鄭寅, 金世奎(호 友松, 화순), 尹濟(함평), 趙鳳瑞(나주), 安基賢(보성), 羅德修(나주), 멀리서는 南以恭(좌이정), 花川正 李壽鵬(종실)등.

21) 『선조실록』 권8, 7년 7월 21일 (甲戌), "務安幼學鄭介淸 爲人詳明 篤志爲學 家至淸貧 未嘗一步妄行 一毫干人 居家奉親至孝 與門徒日講道義 及人者甚多 常做功於禮經 多有發明於『易』學 金應期 鄭介淸 非尋常只合於百執事 云."

희춘의 ‘사서토석’에도 참가하게 된다. 미암일기를 통해 유희춘이 기록하길 다음과 같다.

> 저녁에 務安에 거주하는 전 참봉 정개청께서 來訪하여 뵈임으로 내가 기뻐하며 나가서 大學 吐釋을 논의 서로 많이 부합하는 바를 보았고 또 한 두 개의 口訣이 새로운 것을 들었고 마땅함에 거듭 기뻐하였다.[22]

이처럼 오직 후학을 기르는데 전념하던 선생은 학풍 관계로 평소 疏遠한 사이였던 鄭澈을 비롯한 西人 계열의 疾視에 의해 己丑獄事라 전해 오는 鄭汝立의 역모 사건에 관련 되었다는 모함을 받게 되며 역모 사건 관련에 대해서는 누명을 벗었으나 선생이 진정한 절의와 청담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東漢節義晋宋淸談說」을 排節義라고 하여 1590년 6월 함경도 경원의 阿山堡에 유배 하였고 국문 받을 때 상처가 악화되어 같은 해 7월 26일 62세를 일기로 他界했는데 사후에도 黨人 아닌 당인이 되어 東西 黨爭에 말려들어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賜額書院인 紫山書院이 다섯 번 세워지고 다섯 번 뜯기는 비운을 입었다. 그러나 당대의 영의정 朴淳은 여러 사람들에게 “鄭義伯은 실지로 몸소 행함이 진실하여 程朱 뒤의 한 인물로 나와 같은 높은 벼슬에 천거할 뜻이 있으나 공경 중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기어코 방해를 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후대의 尹善道는 ‘동방의 眞儒로 李滉의 다음’이라고 추앙하였다.[23]

2) 사색과 自得을 중시한 학풍

---

22) 『미암집』「眉巖日記」, 1575 11월 23일(乙亥) “夕 務安居前參奉鄭介淸仁伯來謁 乃監司崔公親語遣之也 監司給驛馬 仁伯不受 自乘己馬 幷馱馬而來 余喜而出見 議論大學吐釋 多所契合 又聞一二口訣之新而當者 深喜深喜.”34책 382쪽.

23) 이현석, 「곤재 정개청(困齋 鄭介淸) 선생의 생애와 학문」, 『愚得錄』, 1988.

정개청에게 학문의 길잡이로 나선 사람이 바로 徐敬德의 수제자 朴淳이다. 정개청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서울에 이르러 선생을 뵈었는데 『대학』을 숙독하라 가르쳐주고 또 『或問』을 숙독하라고 가르쳐주었다. 그 교훈을 들은 이후 엎드려 독서하고 우러러 사색했는데,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자 공부가 점차 향상되어 전날의 그름과 오늘의 얻을 바를 알게 되었다.”[24] 널리 배우기는 했으나 하나로 꿰지 못하고 있던 정개청에게 박순은 『대학혹문』을 ‘숙독’하게 함으로써 답답함을 풀어주었다. 숙독하라는 말은 곧 정밀히 사색하라는 뜻이었다. 이는 화초에 물을 주듯 천천히 오랫동안 독서를 해야 정밀해지고 깊어지며, 정밀해지고 깊어진 뒤에 이치는 저절로 이해된다는 가르침이었다.

> 사람으로써의 학문이 되는바는 道와 德인 것이며 이것을 管理 抱攝하여 施用하는 것이 마음인 것이며 마음의 事物이 되는 그 體는 여러 이치를 갖추게 되며 用은 만사를 運用하게 되는 것이니 조종함으로 이를 존재케 하기에 가히 하늘에게서 받은 덕성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궁구하여 이것을 미루면 가히 나에게 있는 問學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이것은 덕성을 존중하고 문학으로 말미암은 방법이 그 마음을 존재케 하며 그 지식을 이르게 하여 덕을 닦고 도를 응집케 하는 것이어서 어찌 한가지라도 빠짐이 있으면 進趣의 이치가 있을 것인가?
>
> 대개 天下의 일은 千變萬化하여 그 端緖가 무궁함으로 吉凶善惡이 같지 않음이 있고 是非邪正의 趣向도 다름이 있어 그것을 아는 것이 밝지 않음으로 능히 이를 선택하는데 정밀함이 있지 않아 眞妄이 昏雜되고 좋아함과 미워함이 불명하여 마음 전체의 妙用을 다할 수 없게 되어 所見이 혹 사욕을 인식한 것을 진리로 삼는 함정에 빠져버릴 것이다.[25]

---

24) 『愚得錄』권1, 「自學告諸朴思庵淳書」 “及遊京師見先生 敎之以熟讀大學 又敎之以熟讀或問 聞命以來 俯而讀之 仰而思之 日月已久 工夫稍多 而後乃知前日之非 .” 40책 338쪽.

25) 『愚得錄』권1, 「論學」 “人之所以爲學 道與德 而管攝施爲者 心也 心之爲物 體具衆理 用運萬事者也 而操而存之 則可以尊受天之德性 窮而格之 則可以道在我之問學 此所以尊之道之之方 在於存其心致其知 而修德凝道 豈有闕一而可進之理乎 蓋天下之事 千變萬化 其端無窮 而有吉凶善惡之不同 有是非邪正之異趨 使其知不明而不能精於擇之之功 則眞妄雜糅 好惡不明 無以盡此心之全體 而所見或有陷於認欲爲理者矣.” 40책 338쪽.

또한, 진실한 성현 인군이 있어 위로 교화를 진흥시켜 實踐窮行함을 추진하고 敎化를 밝혀 斯文을 振起한다면 格物致知 誠意正心의 학문이 회복되어 덕성의 필요함이 존중되고 問學의 필요성이 由導되어 그 가르쳐 줌을 기다리지 않고도 선비들의 익힘이 날로 진보하고 풍속이 달로 순박해질 것이다[26]라고 하였다.

정개청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말하길, 다음과 같다.

> 대저 사람으로서 사람된 바는 그 마음인 것이며 이 마음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신체의 주인공이 된 것이니 하늘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인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으로 본래 彼此의 사이에는 특별한 틈이 없는 것으로 사람이 이를 스스로 살피지 아니하여 항상 하늘을 보고 그 高遠함이 자기로서는 渺渺하고 멀어서 서로 통하지 않는 것과 같다.[27] 여기서 천도를 섬기는 요점을 말하면 그 마음을 존재하게 하여 그 性質을 양성함에 불과하고 存心養性의 요점을 말하면 居敬할 따름에 불과할 것이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할 指標인 것이다."[28]

> 대개 세상의 학자들은 그 病弊가 한가지 뿐만 아닌 것이니 이른바 高明하고 식견이 통달해서 남달리 절대적인자는 智에 主宰가 된것이니 작은 일이나 작은 행위는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며 마침내 크게 張皇하여 급박하고 조급함에 이르러서는 침착한 맛이 없는 것이며 이른바 意志를 준엄하게 하고 근면하게 행하며 有爲性에 용맹이 있는자는 行함이 主宰가 되기에 배워서 진리를 모으고 물어서 의문을 변별(學聚問辯)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에 구속되지 않고 또 힘쓰지도 않아 마침내 事理에 모호함을 내포하여 昏迷하고 弛緩됨에

---

26) 『愚得錄』권1, 「論學」 "苟有聖賢之君作於上 而推窮行明敎化 以振起斯文 則格致誠正之學可復 而德性之必尊 問學之必道 不待敎而士習日就於正 風俗月將於淳矣." 40책 338쪽.

27) 『愚得錄』권1,「事天工夫不可不書」 "以其心也 是心也 天所賦而身所主也 則天之心 卽人之心也 人之心 卽天之心也 本無間於彼此之殊 而人自不察 故常視以天爲高高 以已爲渺渺 而邈然如不相開." 40책 334쪽.

28) 『愚得錄』권1,「事天工夫不可不書」"事天之要 不過曰存心養性 存養之要 不過曰君敬而已 敬者 窮理正心之地頭." 40책 334쪽.

이르러서는 경계하는 간절한 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기질이 편백해서 깊이 덕성을 존중하고 학문을 길고 삼는데 궁구치 않았기에 겪는 괴로움이며 어리석고 不肖한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賢하고 智한자도 또한 이와 같으니 성인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마땅한 것이다.

대개 학문은 학문으로써 이치를 궁구하여 마음을 바로잡아 그 氣質을 변화하게 한바를 이름하며 사람이 능히 학문에 힘써서 敬으로 내심을 정직하게 하고 義理로 외면을 方正하게 하여 인격을 涵養, 날로 오래 지속되게 하면 스스로 智와 行이 한편으로 치우치는 근심이 없어지게 되어 마음과 몸에 틈이 없는 것을 알면 禮容에 그치는 바가 스스로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29]

정개청은 화담 문하에서 공부하며 異聞을 얻은 바 있고 그런 뒤에 평생 동안 의심나던 것이 한결같아 바로 잡혀 닿는 곳마다 洞然하여 일을 만나면 환하였고, 넓고 요약하는 실력이 이와 같았으나 마음이 겸손하여 아는 체하지 아니했고 만년에는 務安의 淹潭에 살았고 輪巖에 精舍를 지어 講道하니 배움에 뜻이 있는 선비가 멀고 가까운 곳에서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정개청이 여러 제자들의 자질과 성품에 따라 힘껏 가르쳐서 반드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게 한 후에야 그치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도 점차 성취 하였다.[30] 그는 도를 쌓는 것으로 공부를 삼으며 재물로써 부를 삼지 말며 덕의 성함을 貴로 삼지 벼슬로써 貴를 삼지 말고 仁을 얻음이 영화이지 높은 벼슬이 영화가 아니요 구차이 利를 구하는 것이 辱이 되지 困厄은 욕이 아니라고 하였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存心養性을 주장 하였는데 存養하려면 반드

---

29) 『愚得錄』권1, 「內外工夫說」 "大抵世之學者 其病不一 所謂高明洞達 識見絶人者 則王於知者也以爲小事細行 不必爲也 不必行也 終至於張皇迫躁而無次潛之味 所謂刻意厲行 勇於有爲者 主於行者也以 學聚問辨 必拘也 不必强也 終至於含糊昏緩而無警切之功 是皆氣質之偏而不深考尊德性道問學之患也 若愚不肖 固不足道也 賢智亦如此 宜乎聖人之不世出也 夫學問所以窮理正心 變化氣質之謂也 人能勉强學問 敬直義方 而涵養日久 則自無知行一偏之患 而知心與身之無間矣 知心與身之無間 則容止自不得不正矣." 40책 335쪽.

30) 『愚得錄』, 附錄下, 「困齋先生行狀」

시 敬을 가져야함을 주장하고 행동은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삼가기를 주장하여 홀로 있을 때 삼가는 데는 기미를 살펴서 天理에 따라 사람의 욕심을 밝히는데 힘쓰는 것이라 하였다. 실지로 보는 것이 高明하나 항상 통하지 못한 것처럼 하였고 조예가 정묘하고 깊어도 진보하지 못한 것처럼 하였으며 아름다운 德이 쌓였으나 스스로 들어내지 아니 하였고 乾乾夕惕하는 공부를 밥먹을 때나 잠잘 때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다음은 학문을 다하는 요지다.

> 관대히 하되 능히 莊栗하게 하며 柔하게 하되 능히 立事하며 솔직하고 성의가 있되 능히 공순하며 治理를 하되 능히 경건히 삼가며 순하게 하되 毅然해야하고 强勁하되 도의에 합치해야할 것이며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로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라.[31]

정개청은 熟讀과 靜思라는 주자식 독서방법을 전수받은 뒤, 논어의 克己復禮편을 읽다가 스스로 깨달음 自覺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때의 自得의 체험을 글로써서 박순에게 보냈다. 극기라는 것은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제거함을 말한다. 그 공부는 반드시 格物致知를 통해 公/私의 구분을 알고, 성의·정심·수신을 통해 이미 아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런 과정을 축적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정직해지고 몸이 닦여 본연의 性을 얻게 되고 天理의 정당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仁을 추구하는 길이다."[32] 논어의 극기복례와 대학 8조목을 절충시켜 유가가 제시하는 학문과 삶의 궁극적 목표인 仁을 추구하는 길을 자득했던 것이다. 자득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나서 정개청은 반평생 형극 속에 막혀 헤매다가 오늘에야 탄탄대로로 돌아왔으니, 선생의 가르침이 어찌 크지 않겠으며 무겁지 않겠는가라고 글을 끝맺었다.[33]

---

31) 『愚得錄』권2, 「學令」 "寬而栗柔而立 愿而恭亂而敬 擾而毅直而溫 簡而廉剛而塞 强而義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40책387쪽.

32) 『愚得錄』 권1, 「自學告諸朴思庵淳書」 "一日讀論語 到克己復禮爲仁處 卽掩卷而思之曰 克己者 克去已私之謂也 其工夫必在格物致知 以知公私之分 誠意正心修身以實所已知 久而至於積則自然心正身修而得其本然之性 復其天理之正矣 其所以如此者 求仁而已." 40책 338쪽.

정개청의 학문 범위는 큰 틀에서 보면 유학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도 조선조 학문이 주류인 정주학의 범주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는 禪學에 대해서는 “강상을 어기고 인륜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老莊에 대해서도 인륜을 절멸시키고 풍교를 패란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배격했다.[34]

나아가 동진시대에 청담을 숭상한 것, 왕안석이 老佛에 드나든 것, 육구연이 정신만을 함양한 것 등도 모두 국가를 그릇되게 하고 명교를 어지럽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단과 사설이 흥기한 원인에 대해서, 정개청은 “本原이 바르지 않고 義理가 분명하지 못한 때문”이라 진단하고, 이에 이르게 된 것이니 학자는 窮理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다.[35] 이는 공맹유학과 정주학의 窮理정신을 학문의 지반으로 삼아 당시 사회를 유교윤리가 생동하는 세계로 조성해가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소옹의 상수학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에서 황·제·왕·패의 치국론에 정통하게 되었다고 평가받는데 여기서 그가 전통 주자학 진영의 서인들과 충돌하게 된 원인의 일단을 유추 할 수 있다.[36]

한 때 經學에 해박한 인물로 천거되어 校正郎廳에서 경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을 맡았던 정개청은 학자들을 경계하는 글에서도, 경전은 성현의 말과 행동이 기록된 것이고 경전을 연구하는 것은 성현의 말과 행동을 배우는 것이니, 성현을 배우고자 하면서 경전에 실린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물건을 모나게 하거나 둥글게 하고자 하면서 規矩의 정법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여, 성현의 경전과 언행을 유학자의 학문적 지표로 삼아 엄격한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정주학에 대해서도 다행히 천운이 순환하여 聖學이 다시 정자와 주

---

33) 『愚得錄』 권1, 「自學告諸朴思庵淳書」 “無入而不自得焉 豈不樂哉 半生荊棘 困莫迷復 今日坦途 幸然知復 先生之賜豈不大哉 豈不重哉.” 40책 338쪽.

34) 『(국역)愚得錄』 권1, 「老莊」104쪽.

35) 『(국역)愚得錄』 권1, 「論禪學」102~103쪽.

36) 정호훈, 「16세기말 북인의 형성과 국가·군권의식」,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47쪽.

자에 의해 회복되어 中天에 하나의 '敬'자를 게시하여 성학의 전통을 잃지 않게 했다고 논평함으로서 정자와 주자가 단절된 성학의 전통을 이었고 居敬이야말로 성학의 종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학과 정주학에 대한 정개청의 무한한 신뢰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득의 체험도 바로 이 두 학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는 서경덕의 자득의 철학이 정주학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해간 것과 차별되는 점이다.

정개청은 학문에 대해 다음처럼 언급하나 적이 있다. 학문이란 理를 궁구하여 마음을 바로잡고 氣質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학문에 노력하여 敬으로 내면을 정직하게 하고 義로 외면을 방정하게 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품성을 기르고 몸에 틈이 없음을 알게 된다. 마음과 몸에 틈이 없음을 알게 되면 몸가짐이 저절로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학문은 일반적으로는 배우고 묻는 행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窮理-正心-氣質變化의 과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곧 敬과 義이다. 경의로 꾸준히 함양해나가면 언행이 일치되고 심신의 간극이 없어져 올바른 주체로서 대상세계와 합리적으로 교섭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정주학의 학문종지인 窮理와 居敬은 정개청에게도 중요한 학문과제로 각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정개청의 정치사상

1) 현실비판

정개청은 공과 사, 의와 리, 천리와 인욕을 철저히 구분하며 살았다. 공과 의, 천리는 絶對善이요, 사와 리, 인욕은 絶對惡이라는 것이다. 삶과 생각이 그러하였다. 정개청이 유희춘을 만나러 갈 때였다. 감사가 역마를 내주었음에도 자기 말을 타고 갔다. 그래서 유희춘은 더욱 반가웠다고 미암일기에 적었다. 비록 감사의 전갈을 받고 가는 것이지만 사적인 일이므로 공무에 부리는 역마를 타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만큼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살았다.

정개청은 말로는 예의를 말하나 실제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극도로 싫어하였다. 선조 10년(1577) 일부 사족이 무안 승달산의 빈 암자를 공부 장소로 삼고자 할 때였다. 말하기를 다음과 같다.

> 승려의 舍屋을 강당으로 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온당한 것 같았으나 문득 재삼 생각해 보니 그 意思의 氣像이 특히 좋지 못함이 한 두 가지가 아닐 뿐 아니다. 비록 僧舍라고는 하나 저쪽에서 수긍하지 않는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이익을 취하는 기상이며 여러 사람의 施主를 모아 강당을 짓는데 힘을 썼는데 한 가지의 공로도 없으면서 居處만 편히 하려고 했으니 염치없는 부끄러운 모습인데 도리어 불상을 옮기라고 크게 주장하니 그 기상이 장차 童蒙을 양성함에 정당함을 찾아야할 터에 먼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여줌이 옳은 일은 일이라고 하겠는가?
>
> 士君子의 행할바 일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구차스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37]

37) 『愚得錄』, 「困齋先生事實」 "以僧舍爲講堂 初若穩便 再思之則其意思氣像 殊不好者非一 雖曰僧舍 彼不肯而我有之 强占便利之氣像 象施而勤搆 無一功而晏處 靦無廉恥之意思 況其移

이처럼 순간에 암자를 강학 장소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이익을 탐하고 편함을 구하는 염치없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

정개청의 평생 화두는 '왜 사람은 사에 치우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가?', '왜 사람의 몸에 흐르는 血氣가 사람의 욕심을 낳고 이로써 하늘이 내린 공정한 본성을 해치게 되는가?'였다. 정개청은 '私에 매몰되어 公을 팽개치며, 이기가 이타를 이겨서 결국 구차하게 된 세상'을 통박하였다. 특히 선비가 출세와 재물을 위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오로지 재산을 늘리고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과거에 매달리고, 급제를 하면 좋은 벼슬을 얻을 생각만 하고, 벼슬에 나가면 공을 앞세우며 사를 취하는 憑公謀私에만 요량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관료가 된들 '누가 백성을 어떻게 아끼고 보살필 것이며, 백성의 바람을 언제 조정과 임금에게 전달할 것인가'하였다.[38] 정개청은 속세를 피해도 민망한 마음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 만약 학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거짓된 학문을 얻었다면
> 그것은 마치 담장을 넘는 도둑과 같은 것이다.[39]

이처럼 공자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는 군자가 아니냐고 하였는데 지금에 있어 그러는 사람을 보지 못함에 마음이 상하다며 기록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개청은 현실정치에서 박순을 따르지는 않았다. 선조 10년(1577) 박순이 좌의정에서 영중추부사로 물러앉았을 때에는 허물을 시세로 돌리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박

置佛像 大爲主張之氣像 將爲養蒙以正之地而先示不正 可乎 想士君子行事 必不如是之苟也." 40책 423쪽

38)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312~313쪽.

39) 『愚得錄』권1, 「通世無悶」"故曰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此亦傷今之不見其人也 若假儒者之學而求知於人者 其猶穿踰之盜歟."

순은 정개청을 신뢰하였던지 영의정이 되자 성혼·김여물·최경회·서익과 함께 정개청을 재주와 학식이 밝고 통달한 인물로 추천하였다. 선조 16년 (1583) 3월이었다. 그러나 차츰 소원해졌다.

정개청은 생도나 교생이 나태하거나 교만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봉변을 당하기도 하였다. 한 유생이 일과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자만한 모습으로 공부 분위기를 흐리자 나주목사에게 알려 태벌을 내리게 하였는데, 그만 정개청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앙갚음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치열하고 독실한 앎과 삶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광경이였는데 이 유생은 일찍이 기대승과 고경명에게 배우고 이이의 문화에도 출입하였다고 하는데, 훗날 정개청을 정여립의 집터를 잡아주었다고 고발한 당사자였다. 그 때 정개청은 훈도를 그만두고자 하였지만 박순까지 나서서 모욕당하는 일은 공자나 맹자도 면하지 못한 일이니 지금 같은 말세에는 어떻겠는가라고 만류하여 머물렀다가, 유몽정이 떠나자 미련 없이 빠져나온 후로 후임 목사 김성일이 여러 차례 초빙하였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40]

붕괴, 부패되어 가던 당시 세속의 윤리와 습속에 대해 매우 우려했는데 "유학자의 일처리는 습속이 해괴한가 해괴하지 않는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義理가 어떠한지를 살필 뿐이니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습속에 동조할 뿐이라면 그 득실과 이해를 따질 즈음에 저절로 人欲을 따르고 天理를 멸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의리를 자신의 사고와 행위의 잣대로 확립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습속에 동조하게 되면, 결국 인욕을 따르고 천리를 도외시하는 결과로 귀착된다는 뜻이다.

정개청은 정주학적 구도 속에서 자연세계의 원리와 이념이 인간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길을 모색했던 유학자이다. 그러나 기질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인간에게 내재된 도덕원리를 발현시킬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敬공부를 기초로 삼아 氣質의 제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41] 氣質변화의 요지

---

40)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308쪽.

는 다음과 같다. “윗사람이 싫어하는 바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 것이며, 아랫사람이 싫어하는 바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에서 싫어하는 바를 先後로 하지 말고 뒤에 싫어하는 바로 앞을 따르지 말며 우측에서 싫어하는 바를 좌측에 바꾸지 말고 또한 좌측에서 싫어하는 바를 우측에서 바꾸지 말라.”[42] 『중용』의 교훈이었다.

2) 처세론과 국왕비판

정개청은 사람이 한시라도 공경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천지가 겸허하는 誠인 것이며, 군자가 겸허하여야 敬이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마침내 교만 나태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야 날로 새롭게 덕을 쌓을 수 있으며 또한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마음에 조금도 어긋난 생각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내심에 아름다운 덕을 含蓄하고있으면서도 함부로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謙讓하는 마음으로 그 미덕의 性情을 양성하여 총명함을 자처하지 않고 비록 사물의 이치를 알아도 그 아는 바를 恣意로 이용하지 말고 사물의 이치를 알아도 그 아는 바를 자의로 이용하지 아니함을 말하였고, 包容性으로 겸허하되 사람을 대함에 있어 容恕하고 處事를 함에 있어 寬裕함이 있어야 하며 陽剛으로써 陰柔를 받으니 지아비 되니 자가 능히 신부에게 장가들어 和諧를 하며 있어도 없는 것처럼 實해도 虛한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다.[43]

“자신을 낮추고 비운다” 바로 겸허였다. 겸허하지 않으면 공경할 수 없고

---

41) 안동교, 「정개청 사상에서 ‘절의’의 철학적 함의」, 『기축옥사 재조명』,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학술 심포지엄, 2009.

42) 『愚得錄』 권2, 「學令」“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40책387쪽.

43) 『愚得錄』권1, 「謙虛說」“含章括囊 卑以自牧不識不知 右謙底氣象 其效尊而光 卑而不可踰 包荒納婦 有若無 實若虛 右虛底意思.”40책 334쪽.

하늘의 경지인 정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치의 인욕도 용납될 수 없고, 사리사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는 논리였다.[44] 겸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나라의 임금이 겸허하지 않으면 그 총명함을 이용하여 忠直한 신하의 말을 거역하게 되어 桀紂와 같은 폭군을 면치 못하게 되고 신하가 겸허 하지 않으면 양심을 執用하여 好惡에 편백하게 되어 마침내 師尹과 같이 됨을 면치 못하게 되고 배우는 사람이 겸허하지 않으면 私智를 狹持하여 허물 고치기를 인색하게 하여 王安石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면치못하니 가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염려하였다.[45]

유학자로서 습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處世의 관점이나 태도와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여기에서 정개청은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의리의 기분을 지닐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엄격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節義'였다. 정개청이 절의에 대해서 주장하길, 다음과 같다.

> 대게 절의란 것은 의리에 밝아서 사사로운 이해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몸을 행하는 것이 가히 임금을 밝게하고 신하를 곧게하여 화근을 없에고 간신의 싹을 꺽으며 불행히 환난을 당하면 이해를 무릅쓰고 능히 절개를 숭상하여 의에 죽는 것입니다. 동한의 선비는 그 大義가 마음에 새겨져 死生에 변하지 않는 것은 실로 숭상 할만하나 本傳을 살펴 주자의 뜻을 窮究해 보니 직분을 닦지 않고 의리에 힘쓰지 않으며 조정을 더럽고 탁하게 여기고 천하를 하시하여 항상 인물을 평하며 조정을 헐뜯는 일을 다투어 숭상함으로 공, 경 이하가 平議를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고 다투어 사리가 門에 이르니 이것은 학생이 國命을 잡은 것이어서 陪臣이 국명을 잡아도 나라를 망하

---

44)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317~318쪽.

45) 『愚得錄』권1,「謙虛說」"人君不謙虛 則作聰明逆忠直 而未免爲桀, 紂. 人臣不謙虛 則執肺腸偏好惡 而未免爲師尹. 學者不謙虛 則挾私智吝改過 而未免爲安石 可不懼哉." 40책 334쪽.

게 하는데 항차 학생이 국명을 잡고 그 나라를 오래도록 보존 할 수 있으리요. 이것이 바로 주자의 이른바 절의지사가 그 지위에 마땅히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이로써 화를 입을 것이 마땅하다고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그윽히 주자의 뜻을 좇아 이르기를 한낱 절의의 이름만 알고 절의의 實을 모르면 그 폐가 교만하고 허무맹랑한 것을 낳게하여 마침내 사사로운 이해에 빠져 政事가 그 道를 얻지 못하고 지위가 그 사람을 얻지 못하게 적은 것에 실패하고 장차 小人으로 그 몸을 타게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46]

위의 주장은 내면에 갖춰진 도덕성을 근거를 두고 국가와 사회의 윤리를 강인하게 정립해가는 실천적 의리가 곧 절의라는 것이다.

정개청은 절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政府의 잘잘못을 들어내고 人物의 善惡을 밝히는 데는 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태를 분명하게 살피지 못하며 또 그 내리는 조치가 적당함을 잃어 결국에는 국가의 멸망을 재촉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정개청의 이러한 생각은 朱子의 議論에 기대어 나온 것이지만 是是非非와 邪·正을 명확히 밝히는 데서 정국 운영의 핵심적인 방법을 구하고자 했던 당대의 정치풍토를 비판하는 의미가 강했다.[47]

옛날 선비들은 학문을 평소에 충만시켜 그 用에 시행되었으므로 이것이 수시로 드러나서 절의를 세움에 있어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의는 빼앗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쇠미해지고 道가 미약해져도 우뚝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세상에서는 명절이라는 이름을 돌리었고 士君子로서 도학이

46) 『愚得錄』권3, 「康寅獄中疏第七」 "蓋節義云者 明於義理而不蔽於利害之私 故其在平昔行於身者 旣足以君明臣有 潛消禍本 逆折奸萌 而不幸遇患難 則不顧利害而能伏節死義者也 若夫東漢之士 其大義根於心 死生不變 則誠可尙也 而考諸本傳而究其朱子之意 則不修職分 不務義理而汚濁朝廷 高視天下 常以臧否人物 非訐朝政 競爲相尙 而自公卿以下 莫不畏其評議 屣履到門 則是乃學生而執國命也 陪臣執國命 尙可以亡人之國 況學生而執國命 其可以長保其國乎 正朱子所論節義之士 固是非其位之所當言 宜以是致禍者也故臣竊取朱子之意而謂徒知節義之名 不知節義之實 則其弊或至於驕虛浮誕 卒陷於利害之私 而政不得其道 位不得其人 失措於幾微之際 而將使小人 乘其隙而無以爲國矣."40책 403쪽

47) 정호훈, 「16세기말 북인의 형성과 국가·군권의식」『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52쪽.

지극하지 못하여도 또한 이것으로 자부하였으니 이것 또한 보잘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절의에 대한 정개청의 엄밀한 잣대는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논술인「東漢晉宋所尙不同說」에 잘 표현되어 있다. 1584년(56세)에 저술된 논설은 정개청이 평소에 절의의 의미를 천착하다가 마침『주자어류』에서 절의와 청담의 관계를 언급한 주자의 어록을 보고 감동을 받아 만필 형식으로 적어놓은 것이다.[48] 집필한 목적은 위정자와 학자들에게 동한시대의 절의와 진송시대의 청담에 함축된 모순들을 알려서 경계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排節義'로 낙인이 찍혀 이는 사회의 기강을 뿌리채 흔든 중대한 괴오가 되며 치열하게 쌓아올린 그의 학문체계에도 한순간에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옥중에서 정개청은 "본래의 뜻은 절의의 근본을 배양함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9]

「東漢晉宋所尙不同說」은 사회를 떠난 개인주의적 생활이나 재야에서 공론에 기초한 집단적 행동을 배격하는 사고였는데 대체로 절의 · 공론을 중시하는 사류들의 행동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글의 관점은 후대 서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비판되었다.[50]

정개청은 당대를 나라가 망하는 국망의 조짐이 있는 난세로 진단하며 천재지변이 거듭되고 사방에서 도적이 일어나며, 나라는 백성의 원망만 키우고 조정은 세상을 구제하려는 世道를 잃게 되었으니, 망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하늘을 거스르며 백성을 학대하는 逆天虐民이 만연한 세상이라는 것이다. 천리를 망각하고 인욕에 사로잡혀 공과 의를 팽개치며 사와 이에 매몰된 채 백성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나라는 머지 않아 망한다는 매우 비관적 시

48)『愚得錄』,「康寅獄中疏第七」(甲申) "作東漢 晉 宋所尙不同說 己丑錄 作東漢節義晉 宋淸談說 今當從之...讀朱子之書 因感謾筆焉."

49) 안동교,「정개청 사상에서 '절의'의 철학적 함의」,『기축옥사 재조명』,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학술심포지엄, 2009.

50) 정호훈,「16세기말 북인의 형성과 국가군권의식」,『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37쪽.

세관이었다.

임금이 백성에게 정치와 교육을 못하게 하는 명령을 각각 마땅하게 하여 피차간에 조금도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음이 없으면 백성은 곧 가히 백성으로써 그 분수와 소원을 수행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임금이 天命을 받들어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51] 곡성현감을 물러날 때 올린 戊子疏(158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인군은 신하에 대한 禮를 알지 못하고 신하는 인군에 대한 그 충성된 바를 알지 못하여 이로써 부부는 분별함이 없고 長幼는 질서가 없으며 朋友는 신뢰함이 없는데 이르게 되어 한 집안은 흩어져 친척은 각기 마음을 갖게되고 한 나라는 흩어져 君, 臣이 각각 그마음이 있게되어 자기에게만 편리하게 하고 남에게는 불편만 주며 內部만 홀로하여 외부와는 통하지 않게함으로 감정이 偏辟해져 상하가 爭奪을 하고 동시에 도적이 일어나 世道가 흐려지고 나라도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
> 그러기에 사람의 死生과 榮辱, 국가의 廢興과 存亡의 의와 이(義利), 공과 사(公私)의 사이에 있을뿐이어서 비록 스스로 어질고 지혜스런 자가 된다고 해도 혼미해져 그 그른 바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세속의 흐름이 滔滔함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
> 이는 반드시 사람을 들어 꾸짖을 것이 아니라 다만 인군의 한 몸을 꾸짖는데 이르기를, “한 집안이 어질고 사양하면 한 나라가 어질고 사양하며, 한사람이 욕심이 많아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한 나라가 혼란이 일어난다”고 한 것입니다.…오늘날의 世道를 보건데 이미 스스로 가히 어떻게 해야할 방법이 없게 되어 大小의 사람들이 의리를 講明하고 身心을 修治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52]

---

51) 『愚得錄』권1, 「惟辟奉天說」 “君之於民 政敎禁令 各得其宜 而少無彼此當否之失 則民可以各遂分願矣 此所謂惟辟奉天者也.” 40책 340쪽.

52) 『愚得錄』 권3, 「戊子疏第五」 “君之於臣 不知所以爲禮 臣之於君 不知所以爲忠 以至於夫婦無別長幼無序朋友無信 一家離而親戚各有其心 一國離而君臣各有其心 便於已而不便於人獨於內而不通於外 感無不偏而上下爭奪 盜賊竝起 世道亦以之汚 國家亦以之表矣 故人之死生榮辱國之廢興存亡特在乎義利公私之間而已 雖自以爲賢智者 迷於欲而莫覺其非 況俗流之滔滔者乎此不必人人而責之只在於人君之一身 傳曰 一家仁讓 一國仁讓 一人貪戾 一國作亂 此之謂也. … 觀今世道 已自無可奈何 大小之人 未見有講明義理修治身心者.”

임금과 신하, 궁중과 조정이 사리사욕에 사로 잡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니 나라의 위기라는 것이다.[53]

> 천리의 공정함은 본래 理에 근본을 두고 있고 人欲의 私事로움은 氣에서 생긴 것이기에 理를 主로하면 군자가 되고 氣에게 부림을 당하면 小人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천리의 말(言)은 소인의 마음에는 거슬리고, 인욕의 말은 군자의 마음에 배반되어 서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 마치 물과 불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군자와 소인은 갖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천리의 말은 천리의 마음과 합하고 인욕의 말은 인욕의 마음과 합하는 것이니 이는 군자와 소인이 각각 그 類가 있음이며 만약 위에 있는 자가 사람 사람마다 모두 밝은 덕을 밝히게 한다면 어찌 소인을 두려워 할 것인가?[54]

정개청은 당대의 혼란과 불은은 국왕에게 궁극적 책임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典牲暑 主簿에 취임할 수 없음을 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탓할 일이 아니라 바로 人君의 한 몸에 달려 있으며 바로 전하의 마음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금부터 하늘을 받들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겠다는 奉天惠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 하였다. 이는 시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어느덧 임금을 겨냥하였던 것이다.[55]

> 임금이 된 자는 하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의 어버이가 된자이니 그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그리고 흥망이 임금된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고 정직하지 못한 데서 모든 것이 관계되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금의 학문이 仁

---

53)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315쪽.

54) 『愚得錄』 권1, 「君子小人相反說」 "天理之公 本乎理 人欲之私 生於氣 主於理者爲君子 役於氣者爲小人 是以 天理之言 逆於小人之心 人欲之言 背於君子之心 兩不相入 如水火之不相容 所以君子小人之每每相反也 天理之言 合於天理之心 人欲之言 合於人欲之心 此君子小人之各有其類也 若在上者 使人人皆有以明其明德 則何小人之可畏乎."40책 344쪽.

55)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316쪽.

義禮智에 대한 이치를 마음에 얻고 이에 대한 道를 몸소 실행하는데 이르면 멀리 뻗는 芳香의 덕이 상승하여 하늘에 들리게 되고 하늘은 백가지 상서러운 것을 내리게 되면 滂沛의 은택이 땅에 막힘이 없이 통해 地神의 효험스런 신령과 산천의 귀신이 편하게 되며 鳥獸와 물고기와 자라등이 순조롭지 않음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56]

시세의 어두움과 세상의 어지러움이 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한 정개청에게 세상 구제의 제일 방안은 임금이 바로 서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듭 공경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백성이 편안하게 되며, 백성을 새롭게 할 학문을 극진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임금이 솔선수범, 궁리수신을 하여야 재물과 벼슬을 찾아 공부하는 선비의 습성이 고쳐지고 입신출세의 장으로 타락한 학교도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며 나아가 백성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57]

지금 세상에는 학문은 강론하지 않고 사대부가 官爵하나로 학자에게 교만을 부리고 학자도 또한 한가지로 사대부를 떠받들며 아첨을 부려 웃사람을 원조 이익만을 도보할 뿐 仁을 돕고 옳은 일을 하도록 벗사이에 서로 권고하는 길과 덕을 존숭하고 정의를 즐겁게 하는 뜻은 없으니 아아 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벼슬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그 인을 구하는 방법이 昏昧하여 밝은 덕과 新民의 학문은 힘쓰지 않고 심히 한가지로 이에 이르는가? 大丈夫중 대장부가 되는 것은 仁에 살고 義에 말미암을 뿐이니 어찌 사대부의 교만한 벼슬자리에 아첨할 것인가? 느낀바가 있어 論하니 지키기 바란다.[58]

---

56) 『愚得錄』권1, 「論人君之學」"蓋人君者 爲天之子而作民父母者也 其治亂興亡 無不係於一心之正不正 可不愼哉 人君之學 至於心得仁義禮智之理 躬行仁義禮智之道 則馨香之德 升聞于天而天降百祥 滂沛之澤徹于地 而地祇效靈 山川鬼神 莫不以寧 鳥獸魚鱉 莫不以若 況天生烝民孰有一夫之不獲其所者乎. " 40책 340쪽.

57) 이종범, 「鄭介淸-운명은 어쩔 수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316쪽.

58) 『愚得錄』권1, 「莫論官休說」 "而今世學不講 士大夫一以官爵驕其學者 而爲學者 亦以承奉諂其士大夫 以援其上而圖其利 無復有輔仁責善之道 尊德樂義之意 嗚呼 仁在於人而不在於位 何其昧於求仁之方 而不務其明德新民之學 一至於甚耶 大丈夫之爲大丈夫 居仁由義而已 何事於諂其士大夫之驕之以位者乎 有所感而爲之說 以爲之戒云." 40책 356쪽.

정개청은 임금은 백성을 살리고 교화하는 한에서 존재한다는 신념이 투철하여 하늘이 백성을 내고 기르는데 으뜸가는 성인을 가려 임금과 스승을 삼아 교화를 이루라는 책임을 주었다. 昭格署 참봉에 부임할 수 없다면서 올린 乙酉疏에 나오는데 백성을 살리고 가르치는 면에서 임금과 스승은 동격이다고 하였다.[59] 현량과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현행 과거제는 오로지 사리사욕을 직책 녹봉만을 생각하는 관료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賢과 德을 기준으로 하는 공론으로 관료를 선발하자는 것이다. 기묘사림이 도입하였을 때 조정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학풍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인재등용제도였다.[60]

정개청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란 하늘이 내린 착한 본성을 간직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그릇된 욕심이 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믿음을 독실함을 넘어 강박관념처럼 간직하였다. 그만큼 인간의 수양과 실천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근원부터 더듬었고 하늘이 사람을 냈을 때 어떠한 경지였을까하는 궁리였다.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와 같은 어찌하지 못하는 아름답고 착한 경지가 아닐까 하면서 이를 하늘의 精誠이라고 하였다. 성인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하늘의 정성을 따르고자 하는 공경이 사람의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공경이야말로 궁리수신의 본령이며 극기복례의 기본이 된다.

3) 君師論 : 붕당극복의 논리

정개청의 군신론은 북인들이 가진 군주·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고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 군사론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 확립은 군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군주의 역할 혹은 공권의 역할을 중시하

59) 『愚得錄』권3, 「乙酉疏第三」“天之降生蒸民 必有首出之聖 命爲君師 責以致敎 而極財成輔相之道 使人人各盡敬義 莫不與能於天地之間 三代以上之君.” 40책 395쪽
60) 『愚得錄』권1, 「君臣職分」

는 사고였다.

정개청은 天이 총명예지의 聖人을 億兆의 君師로 삼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기질에서 오는 악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본연의 덕성을 획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하였다.[61]군사는 달리 표현하여 首出의 聖明으로도 이야기되었는데 다음의 언급은 군사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하늘이 총명한 자를 낳아 그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하니 백성이 中으로 화협하고 그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니 인민이 極으로 모여든다. 그로 하여금 그들의 性을 온전히 하고 그 직무를 다하게 한다. 이에 君師의 책무가 이처럼 중차대함을 알 수 있다. 곧 군사는 敎化와 政令의 책임자로서, 民人의 덕성을 완성시키고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였다.

군사론이란 현실의 군자가 갖는 역할과 위상을 교화와 정령의 양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이해하는 논리였다. '建中建極'의 의미도 군주가 가진 이러한 역할과 연관하여 구할 수 있는 셈이었다. 여기서 君師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개청의 발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주체의 자율적인 노력보다는 군주 또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偏向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軍師의 교화가 없다면 민인은 스스로 수련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性情의 올바름을 잃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진실로 軍師의 교화가 없다면 능히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수양할 수 없으며, 혹 그 性情의 올바름을 잃게도 될 것이다.[62]

결국 군사론은 예법을 중시하는 예법론의 군주론, 치국론이라 할 것인데 수양 주체들의 개별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군주의 정치적 역할, 군주에 의해 실행되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군주는 교화와 정령의 통일적 주체로서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였던 것이다. 그것은 실상 군주가 우주질서에 참여하여 그 질서의 집행자로

61) 『愚得錄』권3, 「第一疏」 "天必以聰明睿智之聖 命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使人人各得其本然之性而無有氣質之偏 以安其□ 此所以小學大學之敎."40책 389쪽.
62) 『愚得錄』권3, 「第二疏」 "苟非君師之敎化 不能自察自修 而或失其性情之 正." 40책 392쪽.

서 그 질서의 완벽한 체현을 이룸으로써 民人들의 원활한 삶의 재생산을 도모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정개청의 예·법을 중시하는 정치론은 자연질서에 맞추어 성인이 제작한 禮制·法制를 실행할 때 이상정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내면에 내재한 덕성의 이치를 궁구하고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외재규범의 실현을 통해서 주체의 덕성을 함양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63]

정개청의 예를 중시한 것은 법의 상위 개념으로 예를 설정하여 법이 가진 폭력성 혹은 군주 전제성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었다.[64]정개청의 君師論은 政令·敎化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군주의 위상과 역할을 파악하되 이를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화와 위정에서의 군주의 독존적 지위와 역할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료들이 벌이는 파당적 행위나 신권의 압도의 의한 군권의 약화현상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이었다. 정개청이 저술했던 「東漢節義晉宋淸談說」은 신료들의 公論에 기초한 정치행위에 부정적이었던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그는 後漢 말기 太學에서의 儒生들의 名節 숭상을 비판했다. 말하자면 公議·公論의실현을 내세우며 진행되는 붕당 긍정의 정치론을 부정하는 사고라 할 것이다.[65]

동서 분당 이후 당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붕당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여, 여러 붕당의 존재 의의를 긍정하고 調劑保合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고, 여러 정치세력을 君子黨과 小人黨으로 구분한 위에 군자당의 일당 전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66] 公議·公論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정치론을 본격적으로 소화하며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

63) 정호훈, 「16세기 말 북인의 형성과 국가·군권의식」,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56쪽.

64) 정호훈, 「16세기 말 북인의 형성과 국가·군권의식」,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혜안, 2004, 57쪽.

65) 鄭介淸이 제시한 君師論은 英祖代 蕩平政治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조는 君師論을 내세워 政令과 敎化의 통일적 주체로서의 군주를 강조하며, 탕평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호훈, 「18세기 政治變亂과 蕩平政治」, 지식산업사, 1997참고.

66) 정만조,「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性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정개청은 國家와 私家의 위상을 엄격히 구분하고 각각의 場에는 각기 다른 규범·질서가 있으므로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집안에 家道가 있다면 國家에는 國道가 있어 서로 달리 행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뒤섞어 이를테면 국가의 일에 一家의 사사로움을 펼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정개청의 이러한 家·國不同論은 국가가 갖는 권위를 사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화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67]

국가와 사가의 문제가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 같은 사고에서는 항상 국가를 우위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였다. 왕실이나 국왕의 親屬이 관련된 문제도 국가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가보다 국가가 그 영역, 범위가 더 넓으므로 가족윤리보다 국가 윤리가 우선시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公과 私의 영역과 범주를 公은 국가 규범에서 私는 가족윤리와 직접 연관하여 설정하는 의미이다. 이는국가의 권위와 지위를 절대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달리는 법가저거 발상에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68]

정개청의 家道에 대한 國道 優位論은 서인·남인들의 생각과는 크게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그가 서인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한 빌미가 되었다.

軍師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개청의 발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주체의 자율적인 노력보다는 군주 또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偏向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軍師의 교화가 없다면 민인은 스스로 수련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性情의 올바름을 잃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정개청의 군사론은 주자학의 군주론과는 여러모로 대비되는데 정개청의 군사론은 政令·敎化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군주의 위상과 역할을 파악하되, 이를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하는 반면 주자학에서는 현실의 군주와 이상의 君

67) 정호훈, 「16세기 말 북인의 형성과 국가·군권의식」,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65쪽.
68) 정호훈, 「16세기 말 북인의 형성과 국가·군권의식」,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66쪽.

主像을 분리하여 설정하고 현실의 군주는 끊임없이 이상의 군주상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맺음말

16세기 훈척과 사림의 대립시기에 붕당정치가 성립되고 기축옥이 일어나 처사형 사림이 대거 희생되었던 사회 속에 호남의 대표적인 처사사림이었던 정개청이 있었다. 정개청은 호남 사림들이 문학과 풍류로 기우는 경향이 정철에서 비롯되었음을 거침없이 공격하였기 때문에 희생되었고 학자와 관료의 탐욕 그리고 임금을 강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에 기축옥으로 인해 희생되었다.

정개청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마음의 뜻을 바르게 하겠다는 입장에 서서 학문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氣質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사람이 학문에 노력하여 敬으로 내면을 정직하게 하고 義로 외면을 방정하게 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품성을 기르고 몸에 틈이 없음을 알게 된다며 마음과 몸에 틈이 없음을 알게 되면 몸가짐 저절로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선비가 출세와 재물을 위하여 공부하는 모습에 반대하고 오로지 재산을 늘리고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과거에 매달리고 급제를 하면 좋은 벼슬을 얻을 생각만 하는 상황에 어느 관료가 된들 누가 백성을 어떻게 아끼며 보살필 것이며 백성의 바람을 언제 조정과 임금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탄에 빠져 있었다.

유학자의 태도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엄격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節義'를 강조하여 항상 유학자가 몸에서 행하면 군주를 밝게 하고 신하를 곧게 하여 화근을 없애고 간신의 싹을 꺾을 수 있어 내면에 갖춰진 도덕성을 근거를 두고 국가와 사회의 윤리를 강인하게 정립해가는 실천적 의리가 곧 절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독특한 君師論과 家國不同論 등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 尊王을 통하여 국정을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참고문헌

1. 원전

『愚得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眉巖集』

2. 참고논저

고영진,『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국학연구실,『한국유학사상대계Ⅵ-정치사상편』, 한국국학진흥원, 2007.

김우기,『조선중기 척신정치 연구』, 집문당, 2001.

김준석,『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3.

이병휴,『조선전기 기호사림파 연구』, 일조각, 1986.

이병휴,『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이성무,『조선시대 당쟁사』, 동방미디어, 2000.

이종범,『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이태진,『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이태진,『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이태진,『한국 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6.

정호훈,『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최이돈,『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5.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정치사상사』, 백산서당, 2005.

3. 논문

고영진, 「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3.

김 돈, 「선조대 유생층의 공론 형성과 붕당화」, 『진단학보』78, 1994

김동수, 「16~17世紀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특히 鄭介淸의 門人集團과 紫山書院의 置廢事件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연구』7, 전남대사학회, 1977.

김동수, 「기축옥사와 호남 사림」, 『기축옥사재조명』, 호남재단학술심포지엄, 2009.

김학권, 「鄭介淸의 生涯와 思想, 『인문학연구』3,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2.

김항수, 「16세기 士林의 性理學 理解」, 『韓國史論』7, 서울대국사학과, 1981.

도현철, 「정도전의 정치체제론과 재상정치론」, 『韓國史學報』9, 고려사학회, 2000.

설석규, 「16세기 전반 정국과 유소의 성격」, 『대구사학』44, 대구사학회, 1992.

설석규, 「동강(東岡) 금우옹의 정치철학과 붕당론의 전개」, 『연구논총』7, 남명학연구원, 1999.

설석규, 「조선 중기 사림파의 정치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Ⅵ』, 한국국학진흥원, 2007.

신병주, 「조선 중기 북인의 정치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Ⅵ』, 한국국학진흥원, 2007.

안동교, 「정개청 사상에서 '절의'의 철학적 함의」, 『기축옥사 재조명』, 호남재단학술심포지엄, 2009.

정만조, 「16세기 사림계 관료의 붕당론」, 『한국학논총』12,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89.

정만조, 「조선시대의 사림정치」, 『한국사상의 정치형태』, 1993.

정만조, 「조선중기 유학의 계보와 붕당정치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정호훈, 「16세기말 北人의 형성과 國家·君權의식」, 『조선후기 정치사상연구』, 혜안, 2004.

정호훈, 「붕당정치와 군주의 정치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Ⅵ』, 한국국학진흥원, 2007.

최이돈, 「16세기 낭관권의 성장과 붕당정치」, 『규장각』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9.

최이돈, 「16세기 사림의 진출과 정치구조의 변동과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1.

최이돈, 「16세기 공론정치의 형성과정」, 『국사관논총』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최이돈, 「16세기 사림중심의 지방정치 형성과 민」, 『역사와현실』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최이돈, 「조선 전기 사림파의 정치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Ⅵ』, 한국국학진흥원, 2007.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역사교육	학 번	20068223	과 정	석사, 박사
성 명	한글: 주유나	한문 : 朱柔奈	영문 : Ju Yu Na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모아엘가 103동 904호				
연락처	E-MAIL : jyn628@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困齋 鄭介淸의 學問과 政論 영어 :Gonjae Jung Gaechung's Scholarship and Political Idea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

년 월 일

저작자: 주유나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